

지속 가능한 사회 향한 문학적 담론

가족 잃은 노인 '60년만의 복수'

영화 '리멤버' 26일 개봉...이성민·남주혁 연기 호흡

20~22일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
9월까지 강연 7회·대담 등 진행
오후 2시 개막...김시중 시인 시상식



김시중 시인 문정희 시인 엘빈 팡 베잔 마투르

전쟁이나 비상상황에서 작가들은 펜으로 자유와 양심을 표현했다. 80년 5월 광주의 작가들은 문학을 매개로 당시의 참혹한 순간을 고발하고 진실을 추적했다.

전쟁이나 비상사가 아닌 평상시에는 작가들은 다양한 담론을 매개로 동시대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방안 등을 모색했다. 문학의 힘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시아의 문학인들이 건강한 지구와 아름다운 자연, 인간다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올해 4회를 맞는 아시아문화페스티벌(조직위원장 이경자)은 '아시아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다.

오는 20~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문학페스티벌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시아의 문학인들이 담론을 도출하고 실천을 위해 연대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ACC는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사전행사 '미리 만나는 아시아문학'을 지난달까지 진행했으며 총 7회의 강연과 대담 등을 진행했다.

이번 문학페스티벌의 시작은 오는 20일 아시아 각국에서 온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이 아시아문화주간 행사와 전시를 둘러보는 전당 나들이로 문을 연다.

개막식은 오후 2시에 펼쳐진다. 제4회 아시아문학상을 수상한 김시중 시인의 시상식과 함께 기조 강연과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김시중 시인은 '재일(在日)의 삶'을 살면서 한국의 분단극복과 민주화운동, 아시아의 탈식민 냉전에 천착해온 큰 시인이다.

첫날 1세션의 주제는 '마주보기-잃어버린 얼굴'이다. 객체로서 아시아가 다시 아시아인을 객

체화시키는 이중의 모순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 이 자리엔 베트남계 프랑스 소설가 도안 안 투안과 소설가 손흥규, 2018년 맨부커상 국제상 후보 대만작가 우망이(국립동화대 교수), 김수우 시인, 신철규 시인, 고희철 문학평론가 등이 참여한다.

아시아 내부에서 세대간의 불평등의 심화를 주제로 한 세션도 마련돼 있다. 둘째 날 2세션의 '새로 보기-아시아의 청년'에선 싱가포르의 엘빈 팡 시인과 한국 소설가 박서련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들 문인들은 대륙 간 경제 구조의 불평등이 세대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아시아 청년들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미있는 출판기념회도 마련돼 있다. 이번 페스티벌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한 광주전남시인 시선집 '물을 가지고 놀았다'(문학들)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또한 아시아 시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시를 낭송하는 '아시아 문학의 밤'도 예정돼 있다.

한국문학관 관장으로 내정된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의 강연도 펼쳐진다. 문 시인은 이번 강연에서 '세계와 만난 한국문학 그리고 나의 시'에 관해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베잔 마투르, 엘빈 팡, 송경동, 박두규, 이정록, 김중일, 김안, 이재연, 고려인 시인 김 블라디 미르, 전주 시인의 시낭송과 문학 관련 이야기가 펼쳐진다.

인간성과 연대의식을 회복하는 문학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있다.

마지막 22일에는 고재중 시인의 사회로 3세션 '함께 보기-거대한 전환'이 진행된다. 튀르키예의 베잔 마투르와 한국의 장이지가 발제하며 손택수 시인과 김재영 작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미안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항쟁 중 사망한 객피를 비롯해 3명의 시인과 시가 소개된다. 시인의 시를 미안마 유학생들이 직접 낭송해 현실감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오래된 힘과 창조적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연료과의 대화'에는 이경자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김시중시인, 전찬일 평론가가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2022 광주 아시아작가 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페스티벌은 막을 내린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뇌종양 말기 환자 필주(이성민 분)는 점점 떨어지는 기억력에 패밀리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는다.

그런 그에게도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일제강점기. 일본 손수에게 고문당하다 숨진 아버지, 남편의 죽음에 정신을 잃고 돌아가신 어머니, 강제 징용돼 탄광에서 일하다 죽은 형,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까지. 일제강점기에 가족을 모두 잃은 그는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린 백발의 노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 날을 잊지 못한다.

영화 '리멤버'는 기억을 잃어가는 80대 필주가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았던 이들을 적절히 위해 나서는 이야기다.

홀로코스트로 가족을 잃었던 노인이 복수에 나선 내용을 그린 캐나다 영화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2015)의 리메이크작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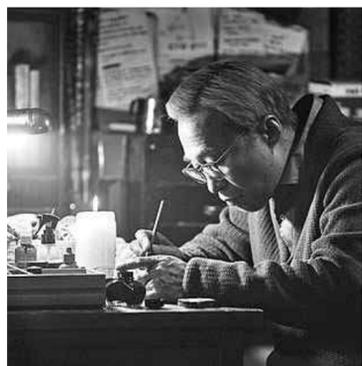
영화는 20대 청년 인규(남주혁)가 필주를 돕는다는 설정을 추가해 원작과 차별화를 뒀다. 전작 '검사의전'(2015)에서 황정민과 강동원의 브로맨스를 그려낸 이일형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인규와 필주의 호흡을 통해 재미를 준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며 친해진 필주와 인규는 돌만의 인사법이 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다. 세대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복수극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적절히 활용된다.

80대 노인들의 액션을 긴박감 있게 펼쳐냈다는 점도 관련 포인트다.

필주를 비롯한 복수의 대상까지 모두 나이가 든 만큼 이들이 펼치는 액션은 기존 작품의 액션보다 확연히 속도감이 떨어진다. 그러나 감독은 인규가 운전하는 빨간 스포츠카, 필주를 쫓는 형사(정만식)를 통해 긴장감을 더해냈다.

50대인 이성민은 목소리와 자세, 걸음걸이까지



'리멤버' 영화 한 장면

연기하며 80대의 필주를 위화감 없이 표현해냈다. 남주혁이 그려낸 20대 청년 인규는 이성민의 연기가 더욱 사실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제강점기와 복수라는 소재를 결합해 현대 시점으로 극을 끌어온 것은 신선하지만 극의 전개가 다소 예측 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과거 청산 문제를 두고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과 그들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온 필주의 대비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결말에 배치된 반전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질문도 남긴다.

이 감독은 시사회에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친일에 대한 문제, 현대 사회에 남아있는 잔재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과연 옳고 그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필주의 사적 복수마저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26일 개봉. 128분. 15세 관람가. /연합뉴스

'어설픈 유괴범' 윤계상

드라마 '유괴의 날' 캐스팅...내년 방영 예정



배우 윤계상이 내년 공개 예정인 드라마 '유괴의 날'에서 어설픈 유괴범으로 변신한다.

드라마 '이성환 변호사 우영우', '빅마우스' 등을 만든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신작 '유괴의 날'에 윤계상을 캐스팅했다고 13일 밝혔다.

'유괴의 날'은 어설픈 유괴범과 11살 천재 소녀의 특별한 공조를 담은 블랙코미디다.

스릴러 장르에서 손꼽히는 정해연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휴머니즘과 미스터리가 섞여 있다.

윤계상은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11살 소녀를 납치하는 초짜 유괴범 김명준을 연기한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얽혀 풀지에 살해 용의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는 인물이다.

마음 약한 유괴범에게 납치당한 천재 소녀 로희

를 연기할 배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출은 '모범가족'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 '킹덤 시즌1' 등에 참여한 박유영 감독이, 각본은 '미쓰 와이프' '날, 보러와요' '치즈인더트랩' 등을 통해 호평받은 김재영 작가가 맡았다.

드라마는 2023년 방송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태진 작가와 만남' 어때?

'조금 다르게 살면 어때' 저자...20·2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인문학 강좌

한 회사의 대표이자 직업이 10개에 달하는 지역의 대표 N잡러. 바로 '조금 다르게 살면 어때'의 김태진 작가다. 김 작가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 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의 인문학 강좌에 강사로 나선다. 오는 20일과 21일 오전 10시.

김 작가는 '사람은 꿈을 닮는다'를 주제로 그동안 살아왔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 기초수급자였던 학창시절 대기업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퇴사를 한 후 커피트럭으로 전국일주를 한다. 또한 무일푼으로 30개국을 여행하며 깨달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동네 줘인이라는 회사를 창업해 청년 공간 운영, 장수사진 프로젝트, 영구임대아파트 공실해결 프로젝트 등 10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



및 행사들을 기획 운영해오고 있다. 김 작가는 다양한 직업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행복하기 위한 꿈 이야기를 전달한다. 수강인원은 15명 내외, 무료 신청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대 연 건 설</h3> <p>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p>	<h3>(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h3>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사,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p>	<h3>(주)대신수산물유통</h3>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꽃게랑 약선반찬 전집</h3>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p>	<h3>금남로 사주 카페</h3>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p>	<h3>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h3> <p>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항도그1개 1000원 치즈항도그1개 1500원, 칠팔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p>	<h3>면쟁이</h3> <p>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대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무크광주세정점</h3> <p>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송가네반찬</h3> <p>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h3>다흥치마 한정식 전문</h3>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p>
<h3>법무사 황영수 사무소</h3> <p>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h3>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준비 ☎ 062-225-4445, 010-3603-3064</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